

“웨딩·이사 시즌 온다”... 유통가, 특수잡기 ‘분주’

3년만에 ‘노마스크 결혼’ 수요 ↑ 지역 백화점 관련제품 매출 ‘껍충’ 프리미엄 프로모션·마일리지 강화 가전 기업들 혼수이사 특별전 마련

“인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 마스크 없이 단체사진을 찍을 수 있는 봄이 3년만에 찾아왔네요.”

실내 마스크 해제로 3년만에 ‘마스크 없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봄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역 유통가의 웨딩 관련 상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생략하고 원하는 품목에 힘을 쓰는 혼수 트렌드가 유지됨에 따라 백화점 웨딩 수요와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첫 웨딩페어를 진행한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신장했다. 특히 웨딩 관련 상품군인 가구는 18%, 가전은 63%, 홈패션·주방용품은 70%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구·홈패션 매장에서 고객이 침구류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역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가전 30%, 식기 82%, 홈패션 36%, 가구 60% 등 혼수 관련 상품군의 신장률이 두드러졌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이번 웨딩페어를 통해 럭셔리 상품군에 대한 프로모션을 강

화함과 동시에 프리미엄 수입차부터 면세점 허니문 쇼핑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9개월간 이용금액에 따라 5~7%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롯데상품

권으로 증정하는 ‘롯데 웨딩마일리지’의 경우 연중 운영되고 있는 리워드 제도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가입대상은 예비 신랑·신부로 가입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예식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면 가입 후 9개월간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기간 종료 후에는 3개월 내에 롯데백화점 사은행사장을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가전 기업들도 본격적인 결혼과 이사 시즌을 맞아 관련 기획전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실시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부터 이사,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매 금액대별 혜택으로 300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10만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600·900·1200·150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20·30·40·50만원 상당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대표적인 웨딩·이사 브랜드가 함께하는 차별화된 올인원 서비스인 ‘비스포크 웨딩클럽’, ‘비스포크 뉴홈클럽’과 연계한 혜택도 제공한다. 비스포크 웨딩클럽에서는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 신혼살림 마련까지 선별된 웨딩 브랜드들, 비스포크 뉴홈클럽에서는 포장이사, 입주 청소, 인테리어 등 이사 준비 필요한 대표 브랜드들을 삼성전자 가전과 함께 한층 더 특별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다

기획전 기간 비스포크 웨딩클럽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모델 수도 늘려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등 9개 품목, 101개 모델에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까지 총 12개 품목, 167개 모델로 대상 상품군을 확대했다.

구매 제품에 따라 2만원부터 최대 2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 품목의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다품목 패키지’를 통해 최대 3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경총 신임 회장에 양진석 (주)호원 회장

내일 홀리데이인광주서 취임식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5일 11시 광주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 윤종해 한국노총광주본부의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역대 회장을 역임한 박용훈, 염홍섭, 최상준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난 3년간 광주경총을 이끌어



온 김봉길 회장(삼각에프엠씨 회장)이 이임하고 제17대 회장으로 양진석 회장(주)호원 회장·사진)이 취임한다.

이·취임식에 앞서 광주경총은 이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 노사협력 대상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장에 이기업 대표

제33회 정기총회서 추대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는 지난 9일 광주 제아트컨벤션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갖고 이기업 주식회사 삼화전력 대표이사를 시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이대표가 제13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에는 박명무 주식회사 다진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대표는 광주시회 제12대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총회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문유근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백영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이사장, 김병옥 한전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장, 이진화 한전 서광주지사장, 윤형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남도회장 등 유관기관 임원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지역 전기공사 업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 및 관계자에게 포상하고, 지역 전기과학생들에게 재단법인 광주전업인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2022년도 주요 추진 사업 보고에 이어 2023회계년도 대의원 9명이 선출되기도 했다.

이기업 신임 회장은 “역대 시회장님들이 탁월한 리더십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단합되고 강한 시회를 만들었으며,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회원님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광주시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中企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

내달 2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식약처 협업, 맞춤형 컨설팅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추진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규제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컨설팅

팅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적으로 1단계(과제기획)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R&D) 신규 과제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발 목적에 따라 신규 원료 개발 또는 기존 원료에 대한 기능성 추가 과정인 Track1과 기존 원료에 포함된 기능성 향상 과정인 Track2로 유형을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원료 발굴에 한정된 Track1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신규 원료 개발뿐만 아니라 ‘고시형’ 또는 ‘개별인

정형’ 원료에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Track1 지원범위에 포함했다.

또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을 1단계 5쪽, 2단계 20쪽 이내로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특성상 외부 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문비용, 전문가 활용비 등 집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접수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한국광기술원, 연구소기업 4곳 현판식

한국광기술원은 기관이 보유한 유망기술 출자를 통해 지난해 설립한 4개의 연구소기업 현판식을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1호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이래 4년 만에 누적 16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 연구소기업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현판식이 진행된 연구소기업 4곳은 한국광기술원이 보유한 광융합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유한 경영 노하우를 결합해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주)에어테크(13호)는 미세먼지 측정기 △(주)리랩(14호)은 3D 스캐너 △에스



디테크놀로지(15호)는 레이저 및 레이저 계측기, △(주)굿비비(16호)는 머신비전 외관검사장비를 주력제품으로 하고 있다.

최근 설립된 4개사를 제외한 기존 12개사의 경우 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총 매출규모 60억원, 고용규모 65명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광기술원은 올해까지 총 20개의

공공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2018년 이후 16개 기업 설립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기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은 “한국광기술원은 연구소기업의 조기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 성과를 확산해 향후 광융합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Advertisement for 'Local Newspaper Development Fund' with a photo of a newspaper and text: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